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The First Churches' Response to the Cyprian Plague and its Driving Forces

최혜영 (Hae-Young Choi)**

ABSTRACT

A number of plagues occurred in ancient Rome. Among them, the most damaging epidemic was the Cyprian plague in the third century. The plague could have posed a great threat to Christians: just as Emperor Nero blamed the Great Fire of Rome on Christians, so the cause of the plague could be passed on to Christians. In fact, it was no coincidence that extreme persecution was caused by the emperor Decius when Cyprianus plague was prevalen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overall aspects that the epidemic caused to society, the Christians' response to it, and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In conclusion, these epidemic rather helped the spread of Christianity: the loving care and good deeds of Christians for the sick, especially cordial funeral ceremony for the dead, seemed to have moved people. And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for Christians to do loving care despite the risk of death was their view of death, in other words, the belief in the resurrection.

Key words: Roman empire, Christianity, Cyprian plague, loving care, resurrection

* 2022년 8월 12일 접수, 9월 1일 게재확정

** 전남대학교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인문관 2호관. chhyy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고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로는 pestilentia, lues, loimos(λοιμός), epidemos(ἐπίδημος) 등이 있었다. 치명적 병을 뜻하는 pestilentia는 페스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데모스가 들어간 epidemos 혹은 pandemos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행하는’의 의미인 팬데믹 등의 용어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여러 용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고대 로마에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괴력이 심했던 것은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 치세에 시작하여 상당 기간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이었다. 이 전염병은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 당시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널리 불린다. 키프리아누스는 “구토 및 설사 증세가 계속하여 온 몸의 힘이 빠지며,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의 상처는 계속 깊어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 나가 걸을 수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는다”고 기록하였다(Cyprianus, De Mortalitate, 14).

전염병 발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병 자체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 발발 역시 기독교도 탓으로 전가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 유행 당시 데키우스 황제에 의한 전 제국적인 차원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에우세비오스의 교회사에는, ‘이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같이 여러 재난을 당한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이에 더하여 이교도들이 가한 위해와 재난까지 당해야 했다’라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던 디오니시우의 증언이 소개된다(Eusebius, 7.22).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큰 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3세기 중엽 로마 제국 시대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COVID-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영향은 전 세계 문화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심대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COVID-19는 교회의 위상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긍정적인 영향도 찾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더욱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로마 제국 당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팽배했던 사회적 혼돈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과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로마 시대의 전염병과 기독교를 다루는 연구는 없지 않지만¹⁾, 이 글은 키프리아누스 역병 및 기독교인의 대처 모습과 그 원동력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별이 된다.

II. 데키우스 황제 치세기의 전염병과 기독교

1. 전염병 당시의 상황

3세기,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시작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치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당시의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홍역, 천연두, 팬데믹 인플루엔자 등등 여러 견해가 있는 가운데(이상규, 2020: 42), 이 역병으로 특히 농촌인구가 받은 타격은 심했으며, 로마시의 인명 피해도 심각하여서 하루에 5천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도 한다(McNeill, 2005: 138 ; Stark, 1996: 772). 『키프리아누스 일대기』를 쓴 폰티우스는 당시의 전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놀라운 파괴력이 각 집마다 파고들어 가서 각 집마다 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갑자기 죽어갔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전염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라 전하고 있다(Pontius Carthage, 9). 대체로 전염병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나 전쟁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더욱 큰 위협이 되게 마련이었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에도 북방에서의 게르만족의 침입도 역병의 발생과 함께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되어 그다음 세기에 살았던 교회사가 에우세비오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 전쟁에서 로마가 패하면서 재난은 가중되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재산을 다 팔고도 부족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개에게 뜯기기도 하였다(Eusebius, 9.8).”

재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로마 국가적 차원의 전통적인 노력 가운데 당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신들 달래기’ 의식인 ‘수플리카티오네스(supplicationes)’이었다. 이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많

1) 로마 시대의 전염병과 기독교를 다루는 선행 연구로는 이상규,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종교문화학보』 제17권 2호(2020), 37-52 ; 이명석,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선교 신학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주는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53(2021), 37-168 ; 안희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 『선교와 신학』 52(2020), 39-69 등이 있다.

은 전염병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공화정 기 전염병의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를 피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허사가 되자 원로원 의원들은 신에게 탄원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모든 신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전한다(eg. Livius, 3.7.6; 5.13).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별 소용없이 전염병이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렉티스테르니움(lectisternium)’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렉티스테르니움은 모두가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천을 두른 신들의 조각상을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음식을 차린 탁자를 대체로 일주일 정도 배설하는 의식으로 전쟁이나 기근 같은 국가의 위기 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플리카티오네스나 렉티스테르니움 등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계속되자 “사람도 신들도 이를 막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연극 공연’까지 도입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고 국가 원수(딕타토르)를 새롭게 뽑아서 ‘못 박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저지하려고도 하였다(Livius, 7.1~3).

즉 이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서 온갖 관습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들을 달래는” 의식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cf. Livius, 22.10.8). 3세기 중엽,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데키우스 황제 및 그를 이어서 제위에 오른 발렌티우스 황제 역시 “신들을 달래는 방법”에 의존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 제국적인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와 관련하여서 리브스(Rives)는 데키우스 칙령이 꼭 기독교도를 겨냥해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Rives, 1999: 135-154), 황제 숭배가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였으며, 또 데키우스가 유일신을 믿던 유대교도들을 여러 신들의 숭배 의무에서 제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데키우스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이탈리아 등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역병이 퍼져나가는 동시에 북쪽의 게르만족이나 오리엔트 쪽 변경 침입이 극성에 달하게 되자, 전통적 신들을 달래어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기독교도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Haas, 1983: 133-144).²⁾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전 로마 제국민들은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였으며,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인 리벨루스(libellus)를 소지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칙령은 배교자나 순교

2) 데키우스가 혹독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는 데키우스의 전임 황제 (또 데키우스가 죽었던) 필립푸스가 기독교에 온화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상당수 학자들은 이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당시의 관행을 생각해보면 꼭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위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는 일종의 ‘수호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던 시기에 이교신과 기독교의 갈등으로 드러나기 쉬웠는데,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의 일화가 그 예이다. 이는 이후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갈등에서도 이어지는데, 리키니우스는 원래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와 싸우면서는 이교신 유피테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독교도를 박해하기에 이른다. 특히 율리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우스 2세의 갈등에서 이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콘스탄티우스 2세에 대항하여 이교신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4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자를 양산하기 마련이었다(Potter, 2004: 241). 당시의 대표적인 순교자로서는 로마 주교 식스투스 와 여러 사제들, 아프리카의 주교 테오게네스, 아가피우스 세쿰디우스 등이 있었으며, 데키우스 황제 때는 박해를 피했던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도 다음 발렌티우스 황제 박해 때 순교하였다 (Cyprianus, Epistulae 76-81; Eusebius, 7.10-12).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혹은 향락주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폰티우스는 사람들이 “죽게 될 사람을 내버리면 죽음 자체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까지 매정하게 내쳤다. 도시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남이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다(Pontius Carthage, 9).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의 증상이 시작된 사람들을 내쫓았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버렸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길에 내다버렸고 사체를 쓰레기처럼 대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음을 피하려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Eusebius, 7.22).

이러한 상황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아테네에서 창궐하였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바를 이렇게 증언한 바 있었다.

전염병이 유행하자 의사들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다른 기술도 소용이 없었다. 신 전이나 신탁에 호소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므로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말로 묘사하기 힘든 이 가혹한 전염병은 체력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장 큰 고통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큰 파국을 초래했다. 겁이 나서 병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고,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있었으며 성소에도 죽은 시신들로 가득 찼다. 그 결과 신성과 세속적 경건함이 다 무시당했다. 또 더 큰 다른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삶과 부가 다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즉흥적 환락, 순간의 쾌락을 좇고 유용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Thucydides, 2. 47 ff).

2. 기독교인들의 대처

극심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친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든가 순간적 향락에 빠져들었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전한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즉 죽었다는 의미)(Eusebius, 7.22).

카르타고의 폰티우스 역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자는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독려하면서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 뛰어들어, 자신을 박해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병자들은 물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까지 보살피고 죽게 되면 장례 의식까지 치러주었다는 것이다(Pontius Carthage, 9).

이러한 수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키프리아누스보다 살짝 늦은 시기인 3세기 후반에 활동하였던 기독교 문필가 락탄티우스는 정의와 덕을 논하는 글에서, 고아와 과부 및 아픈 자들을 돕고 돌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경건’은 바로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주검을 매장하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락탄티우스는 타인의 주검을 경건하게 마무리해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그들 나름의 정의와 덕을 부르짖던 로마 시대의 문필가나 철학자들, 예컨대 키케로 같은 이들이 전혀 손대지 못한 영역, 그들의 사상과 기독교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 비교 설명하고 있다(Lactantius, 6.12). 실제로 전염병 유행기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리고 피하는 데 비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자들을 돌보고 죽으면 정성껏 매장까지 해주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4세기에 다시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열심과 경건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오직 그들만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과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종일 죽은 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들이 무수했기 때

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이 사람들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Eusebius, 9.8).”라는 것이다.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던 4세기 황제 율리아누스로서도 기독교의 이런 선행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의 장례 의식을 낮에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까지 내린 적 있다. 기독교인의 경건한 장례 의식,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렸던 조치였다. 또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도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즉 기독교도들)’은 인간애(φιλανθρωπία. 필란트로피아)를 실천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물론 이교도들 가운데 불쌍한 자들도 돕는다고 하면서,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도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eg. Fragmentum Epistolae. 305 B-C).

이러한 선행은 유대인들과도 달랐다. 유대인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선이 주로 자신들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르는 이웃에게까지 퍼져갔기 때문이었다. 이는 후기 문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호 집단들인 파라발라니(parabalani, 혹은 parabalaneis παραβαλανεῖς), 혹은 파라볼로이(παράβολοι), 필로킨디노이(philokindynoi, φιλοκίνδυνοι), 필로포노이(philoponoι, φιλόπονοι), 스푸다이오이(spoudaioi, σπουδαῖοι)라 불리는 사람들의 원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파라발라니나 필로킨디노이 등은 문자 그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필로포노이는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스푸다이오이는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단어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거나 고된 일을 감내하거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기까지 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파라발라니는 파라발로(παράβαλλω)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테오도시우스 법전 및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도 나오는 이 단어는 ‘병든 자를 돕는 이들’을 의미하였다(Theodosian Code, 16.2.43). 이들은 목욕장 시중인, 간호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필립스본(A. Philipsborn)은 파라발라니가 오늘날 앰블런스 대원, 혹은 의료보조인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았다. 필로포노이에 대해서는 <세베루스의 생애>를 쓴 스가라(Zacharias)가 언급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나온다. 소프로니우스(Sophronius)는 이들이 파라발라니처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친 이들이라 말하였다. 스푸다이오이(σπουδαῖοι)는

‘함께 하다’, ‘붙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이는 신약성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12:9)의 “선에 붙어있으라(κολλώμενοι τῷ ἀγαθῷ)고 할 때 쓰였던 콜로메노이(κολλώμενοι)라는 단어, 혹은 고린도 전서(6:17)의 “주께 붙어있으라(κολλώμενος τῷ Κυρίῳ)”와 통하는 단어로 보인다(Bowersock, 45-54).

이러한 수고의 전통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스타크(R. Stark)는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인의 대처가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시게리스트(H. Sigerist)는 기독교는 아픈 이들을 향한 사회적 태도에 가장 혁명적이며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고찰한 바 있다(Ferngren, 2011: 재인용).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와 그의 사제들은 그들의 주교지에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정도였다(Cartwright & Biddis, 2004: 47). 그란트(R. M. Grant)는 2세기 말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6천만 명 정도, 로마시 인구를 7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후로 기독교인의 수는 10년마다 40%씩 증가해서 4세기 중엽에는 3천만 명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Grant, 1977: 6 ; cf. Stark, 1996: 10, 74). 물론 이러한 수치는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하며, 특히 4세기 중엽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으로 인한 영향이 아주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3세기 이후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던 것은 사실인데, 이는 키프리아누스 역병 등과 같은 자신과 이웃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인의 헌신적 대처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특기할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의 대다수의 이교도들은 병들게 되면 당시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나 아폴론 신 등에게 의지하였고, 오늘날의 병원 비슷한 역할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이 맡고 있었다. 병자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치면 음악치료, 연극치료, 특히 꿈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나타나서 처방전을 알려주는 수면치료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전한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병이 나은 이들이 바친 많은 봉헌물이 오늘날까지 전한다. 그런데 이들 신전은 일시적 치료를 위한 시설에 가까웠고,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자들을 정성껏 간호하다가 죽으면 그 시신까지 정성껏 매장해주는 과정에서 병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설을 탄생, 발전시키게 되었다. 브라운(P. Brown)은 기독교인들의 가난한 자와 병자를 함께 돌보는 시설(poorhouse-cum-hospital)은 고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설이었다고 평가하였다(Brown, 2002: 34). 즉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 크세노도케이아(Ksenodocheia. ξενοδοχεία, 나그네를 위한 집), 프톡케이아(Ptocheia. πτωχεία, 가난

한 자들을 위한 집), 노소코메이아(Nosokomeia. νοσοκομεία, 아픈 자들을 위한 집) 등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밀러(T. Miller)가 기독교가 (동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병원 시설을 창조하였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Miller, 1985: 50). 현재 그리스어로도 병원을 가르키는 말은 ‘노소코모스(νοσοκόμος)’이다.

III. 전염병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원동력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특히 세 가지 두려움, 즉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timor mortis)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Augustinus, Soliloquia, 1.16). 전염병은 이 모든 두려움이 수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일쑤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시각, 즉 부활과 관련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1. 사랑과 기쁨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전통적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교적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물론 신들도 각자의 총애하는 인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 신이 좋아하던 인간을 버리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를 들어서 『일리아스』에서 아폴론 신은 자신이 좋아하던 영웅 헥토르의 죽음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아프로디테 여신은 총애하던 파리스의 죽음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히폴리토스』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히폴리토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일종의 수호 정령 ‘게니우스’ 역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수호하던 사람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으로 비추어지기 쉬웠다(Aristoteles, Magna Moralia 1208 B 30). 또한 로마 시대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스토아 철학의 최상 가치는 아파테이아, 즉 감정에서 초월하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에서 동정이나 공혹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려움과 욕망과 더불어 피해야 할 것, ‘영혼의 질병(morbos animi)’으로까지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과 공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인간 편으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자 덕목이었던 것이다. 초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가”라는 말을 이웃에게 듣는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미움으로 가득한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또 기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리나라 헌금을 하여 이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가난한 노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사람들’, 혹은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로 불리었다고 전한다(Tertullianus, De Patientia. 39).

교부 이그나티우스 역시 ‘기독교인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끝은 사랑’이라고 하였으며(Ignatius, 3. 14),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영혼의 손’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Augustinus, Sermo, 125).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티데스는 기독교인들은 하인들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독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되면 형제라 부르고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돌보는데, 육신적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넉넉하지 않다면 이틀이나 사흘간 금식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인 것이다(Laistner, 1967: 26-27 ; Hengel, 1974: 42-43). 여기서 로마 제국, 초대 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에 관한 비슷한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큰 기쁨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초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언급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유행하던 당시의 디오니시우스 주교도 기독교인들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전염병의 공격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2. 부활에 대한 믿음

이상에서 로마 제국 당시의 여타 종교에서나 철학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덕목이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드러졌던 사랑, 공흠, 기쁨 등의 덕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압박한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당시 전통종교나 철학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

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및 초대 순교자들 관련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및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죽음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특기할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경험이 보다 일상적인 것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토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죽음에서의 부활 사상은 당시 로마의 보통 지성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에 속하였다. 물론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죽음 앞에 용맹스러웠던 이들도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과 기독교인의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de Civitate Dei 5.13~14). 로마의 영웅들이 ‘인간의 칭송에 대한 사랑(amor humanae laudis)’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amor veritatis)’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것은 비기독교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기독교 반박문』을 썼던 이교 사상가 켈수스(Celsus)가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극도에 달한다고 비판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현재로 소문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극에 달한다고 여겼다. 로마 최대의 문필가 키케로(Cicero)는 신들에 대한 경건함, 신앙의 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자기의 딸 툴리아가 죽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보낸 편지(Cicero, 12)에서는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소망이나 종교적 신념 등은 찾을 수가 없다. 키케로는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에서는 비슷하거나 열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religio)’, 즉 ‘신들에 대한 숭배(cultu deorum)’에 관한 한은 가장 우수하다면서, 로마 종교에 큰 자부심을 보이고 있지만(de Natura Deorum. 2.3; de Haruspicum Responso. 19), 그런 것은 공적인 외교적 발언에 가깝고 실제의 믿음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자 소망”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없앤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흔들거릴 것”이며, “육체는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흠, 부족함, 죽음 없이 새로 살아날 것”이라 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Augustinus, Sermo, 361.2).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라져가는 현세의 삶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라면 멸망하지 않을 저곳의 삶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Augustinus, Sermo, 344.3-4).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언한다(cf. Morgan-Wynne, 1984:

173). 2세기 리옹에서 순교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삶이란 죽음이며, 죽음은 승리이며, 영원한 삶을 의미하였다. 역시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에베소의 주교 폴리카르포스는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찌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였다. 즉 이들은 죽음과 고통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만약 내가 고난당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박 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나는 찌어질 양식이나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구합니다. 그리고 찌지 아니하는 사랑의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를 구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Ignatius, 4). 기원전 2세기 초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음을 선고받지만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티데스는 “믿는 누군가가 죽으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마치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의 주검을 뒤따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릴 때 죽으면 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껏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아무도 죽음으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데, 삶에는 고통과 위험이 있지만 죽음 안에서는 평화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의 약속된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변한 바 있었다(Tertullianus, De Patientia. 9.2-3).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불이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부활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강한 믿음은 현대 기독교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까지 보인다.

3. 키프리아누스의 죽음과 부활관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는 3세기 전염병의 유행과 박해의 한가운데 살았던 키프리아누스의 글 『죽음에 대해서』(De Mortalitate)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키프리아누스가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쓴 이 글에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이제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격하여 모두 죽어간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는 달라진다. 우리의 몸은 첫 번째 탄생으로 같은 육체를 가지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세상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달라진다. 영혼에 있어서 갈라지기 때문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멸망할 것이 불멸함을 입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Cyprianus, De Mortalitate 8).

키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한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었고, 바울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살전 4:13).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요 11:25)”라고 말씀하였던 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덧, 육체의 죄와 악과 고통, 악마의 계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기쁨,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7. 21).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처소에 자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한 것에 이미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폭풍이나 돌풍, 어떤 흔들림에도 떨지 말아야한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다. 이 세상의 사라짐과 함께 삶의 보상, 영원한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낙원을 소유함 등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하늘의 일들, 위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지상, 작은 일, 없어질 것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이므로 걱정과 외로움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2). 아기로 오셨던 구세주의 탄생을 보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시몬처럼, 우리도 죽고 난 다음 영생과 우리 집과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3).

그러면서 그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사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명백하게 말한다. 소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후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둘째 죽음으로 옮겨질 사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타는 불길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한다(Cyprianus, De Mortalitate, 7, 15). 그는 오히려 빠른 죽음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어서 빨리 가자. 모두가 기다리는 곳으로”라고 권면한다(Cyprianus, De Mortalitate, 20, 26). 실제로 키프리아누스는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항해자’처럼, ‘손님’처럼, ‘이방인’

처럼 살면서, 데키우스 황제 당시는 (이곳에서 박해를 하면 저곳으로 피하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박해를 피해 피신하였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인 순교로 삶을 마쳤다.

IV. 나가는 말

고대 로마 당시에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전염병은 3세기 중엽,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의 황제 데키우스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도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 글은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의 전반적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특히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 그 원동력 등을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로마 제국 당시에 만연했던 전염병은 단기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수난을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자들을 향한 보살핌과 선행,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을 성의껏 매장해주는 행위 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과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 교회가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4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던 이러한 교회의 역동적 모습은 4세기 말 경이 되면 원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급속하게 변질되어 갔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는 앞에서 전염병 등의 상황에서 죽음을 무릎 쓰고 봉사했던 기독교도들을 지칭하던 ‘파라발라니(parabalani)’를 들 수 있다. 이들은 5세기 초에는 마치 광신적 폭도처럼 변하게 되어서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변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즈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오려 애쓰던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가 점차 거대한 이익 집단과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의 외형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온갖 비리가 난무

한다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난 받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나가면서, 전염병이 난무하던 상황에서의 초대 기독교인의 대처 모습이나 평판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는 큰 대조가 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의 COVID-19의 유행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더욱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시점에서 초대 교회가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부활에 대한 믿음 등은 다시 바르게 이해되고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의 영성과 가치를 되살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덕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고대 로마 제국, 초대 교회 당시의 사례를 교사로 삼아서 전염병의 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인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훈 역. (2004). **질병의 역사**, Cartwright F. F. & Biddis, M. (1991). *Disease & History*. 서울: 가람기획.
- [Kim, H. (2004). *Disease & History*. Seoul: Garam Giheok. Trans. Cartwright F. F. & Biddis, M. (1991). *Disease & History*. NY: Dorset Press.]
- 김우영 역. (2005). **전염병의 세계사**.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서울: 이산.
- [Kim, Y. Y. (2005).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Seoul: Isan. Trans.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NY: Anchor Press.]
- 이명석 (2021).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선교 신학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주는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53, 37-168.
- [Lee, M. S. (2021). The Missional Theology of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s Missional Im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in the Era of COVID-19, *Gospel and Evangelism*, 53, 37-168.]
- 이상규 (2020).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종교문화학보**. 17(2), 37-52.
- [Lee, S. G. (2020). Pandemic disease in the Roman Empire and Christian Response. *The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7(2), 37-52.]
- Brown, P. (2002).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London: University

- Press of New England.
- Grant, R. M. (1977). *Early Christianity and Societ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Haas, C. J. (1983). Imperial Religious Policy and Valerian's Persecution of the Church, AD 257-260. *Church History*, 52(3), 133-144.
- Laistner, M. L. (1967). *Christianity and Paga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gel, M. (1974). *Property and Riches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Miller, T. S. (1985). *The Birth of the Hospital in the Byzantine Empi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gan-Wynne, J. E. (1984).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xperience in Justin Martyr. *Vigiliae Christianae* 38, 172-177.
- Potter, D. S. (2004).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 London: Routledge.
- Rives, J. B. (1999). The Decree of Decius and the Religion of Empir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89, 135-154.
- Stark, R.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Aristoteles, *Magna Moralia*. https://archive.org/stream/magnamoralia00arisuoft/magnamoralia00arisuoft_djvu.txt.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Sermo*.
<https://wesleyscholar.com/wp-content/uploads/2019/04/Augustine-Sermons-341-400.pdf>.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Soliloquia*.
https://en.wikisource.org/wiki/Nicene_and_Post-Nicene_Fathers:_Series_I/Volume_VII/Two_Books_of_Soliloquies/Book_I.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de Civitate Dei*.
https://la.wikisource.org/wiki/De_civitate_Dei/Liber_V. (검색일 2022. 08.05)
- Cicero, *Epistulae ad Atticum*.
<https://www.gutenberg.org/files/51403/51403-h/51403-h.htm>. (검색일 2022. 08.05)
- Cicero, *de Natura Deorum*.
<https://oll.libertyfund.org/title/cicero-on-the-nature-of-the-gods>. (검색일 2022. 08.05)
- Cicero, *de Haruspicum Respons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Cic.+Har.+19&fromdoc=Perseus%3Atext%3A1999.02.0020>. (검색일 2022. 08.05)

Cyprianus. *De Mortalitate*.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Liber_de_Mortalitate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Liber_de_Mortalitate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Cyprianus. *Epistulae*.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Epistolae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Epistolae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65-0339,_Eusebius_Caesariensis,_Historia_ecclesiastica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65-0339,_Eusebius_Caesariensis,_Historia_ecclesiastica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Ignatius. *Epistole pros tous Ephesious*.

<https://www.newadvent.org/fathers/0104.htm>. (검색일 2022. 08.05)

Julianus, *Fragmentum Epistolae*.

<https://www.gutenberg.org/files/48768/48768-h/48768-h.html#toc21>. (검색일 2022. 08.05)

Lactantius. *Institutiones Divinae*.

<https://www.newadvent.org/fathers/07016.htm>. (검색일 2022. 08.05)

Livius. *ab Urbe Condita*.

<https://www.gutenberg.org/files/19725/19725-h/19725-h.htm>. (검색일 2022. 08.05)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https://www.newadvent.org/fathers/0505.htm>. (검색일 2022. 08.05)

Tertullianus. *De Patientia*.

https://www.tertullian.org/anf/anf03/anf03-56.htm#P12312_3443182. (검색일 2022. 08.05)

Thucydides. *Historia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1999.01.0247%3Abook%3D2%3Achapter%3D47>. (검색일 2022. 08.05)

Bowersock, G. Parabalani: A Terrorist Charity in Late Antiquity, 45-54. <https://journals.openedition.org/anabases/1061>. (검색일 2022. 08.05)

Ferngren, G. B. (2011). A New Era in Roman Healthcare. *Christian History* 101. (<https://christianhistoryinstitute.org/magazine/article/new-era-in-roman-healthcare>). (검색일 2022. 08.05)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The First Churches' Response to the Cyprian Plague and its Driving Forces

최혜영 (전남대학교)

논문초록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전염병은 3세기 중엽에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의 황제 데키우스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도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본고는 3세기 중엽 초대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야기한 전반적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의 모습,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자들을 향한 보살핌과 선행,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을 성의껏 매장해주는 행위 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한 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날 Covid-19라는 전염병 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로마 제국, 기독교, 키프리아누스 역병, 사랑의 돌봄, 부활